

평균구속으로 본 KBO 상남자들의 최고 직구는?

선발 직구 평균 키움 안우진 152.4km 1위...두산 로버트 스타크 152.1km

불펜투수 직구 평균구속 1위 SSG 조요한 153.3km · 2위 고우석 152.5km

실점 위기 상황에서 자신이 가진 가장 강력한 직구로 삼진을 잡는 장면은 야구를 보는 가장 큰 재미 중 하나다. KBO리그에서 '꿈의 160km'를 던지는 선수는 없지만, 150km 이상의 강속구를 던지는 투수는 꽤 있다.

과거 LG 트윈스에서 뛰었던 레다메스 리즈는 160km 이상의 직구를 여러 차례 보여준 바 있다.

키움 히어로즈의 에이스 안우진은 올해 중계화면에 시속 160km를 찍었다. 공식 기록은 아니지만, 대단한 기록이었다. 앞으로 꿈의 기록에 가장 근접한 선수로 평가받고 있다.

KBO리그에서 150km대의 공을 가장 손쉽게 던질 수 있는 투수는 누가 있을까.

올 시즌 KBO 선발 투수 중 평균적으로 가장 빠른 공을 던지는 선수는 안우진이다.

안우진은 직구 평균구속이 152.4km에 이른다. 안우진은 올 시즌 들어 구속이 더 빨라졌고, 제구력까지 잡혀 KBO리그 최고 수준의 투수로 성장했다. 23세로 젊은 투수이기

때문에 아직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

안우진은 올해 24경기에 등판해 11승 7패 평균자책점 2.21을 기록중이다. 피안타율이 0.190으로 KBO리그 투수 중 가장 낮다.

안우진의 뒤를 잇는 선수는 두산 베어스의 에이스 로버트 스타크이다. 스타크의 직구 평균구속은 152.1km이다.

스타크는 마음만 먹으면 150km대 직구를 포수 미트에 꽂을 수 있는 투수이다. 제구력에 다소 문제점을 갖고 있지만, 직구 구종 하나 만큼은 탈 KBO급이다.

삼성 라이온즈 외국인 투수 알버트 수아레즈의 직구 평균구속은 150.6km이다. 수아레즈는 포심과 투심 두 가지의 패스트볼을 던진다. 특히 간결한 투구폼 속에서 나오는 주무기 투심패스트볼은 150km대 중반까지 나오고 예리한 변화를 동반한다.

다승왕을 노리고 있는 SSG 랜더스의 월터 폰트의 구속도 뒤지지 않는다. 직구 평균구속은 149.2km다. 직구 구사비율이 65%를 넘지만 상대 타자들은 알고도 때려내지

못한다. 엄청난 스테미너와 구위, 자신감이 아니라면 불가능한 투구 패턴이다.

KIA 타이거즈에서 뛰었던 로니 윌리엄스의 직구 평균구속은 149.1km였고, NC 다이노스 에이스 드류 루친스키가 148.7km를 기록했다. 도중 선발투수 중에는 KIA 한승혁이 147.1km로 안우진 다음으로 직구 평균구속이 빠른 투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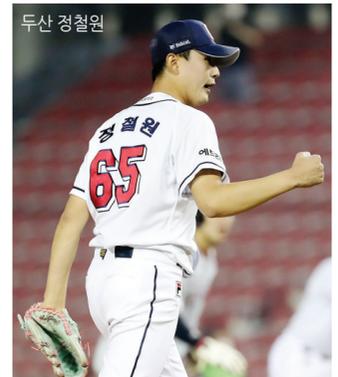
마운드에 오르자마자 전력 피칭을 해야 하는 불펜 투수의 직구 평균구속은 선발투수보다 다소 빠르다.

SSG의 불펜투수 조요한은 무려 153.3km의 직구 평균구속을 자랑한다. 제구력만 잡히면 엄청난 투수의 자질을 뽐낼 수 있다.

LG의 수호신 고우석은 152.5km의 포심패스트볼 평균구속을 자랑한다. 컨디션이 좋은 경우, 과거 오승환(삼성)의 전성기 시절이 때오를 정도로 엄청난 회전과 무브먼트를 보여준다. 올해 32세이브를 올린 고우석은 생애 첫 원정왕에 도전하고 있다.



키움 안우진



두산 정철원

'미완의 대기' 문동주(한화 이글스)도 구위 하나 만큼은 뒤지지 않는다. 직구 평균구속은 151.7km이다. 슈퍼투키의 차질을 타고났지만 현재 경기 운영 능력과 제구력을 가다듬고 있다.

키움 정재영의 직구 구종 가치도 대단하다. 신인 시절부터 '파이어볼러'로 명성을 떨쳤다. 하지만 제구력 난조로 프로 2년차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직구 평균구속은 151.3km이다. 삼성 라이온즈의 김윤수는 직구 평균구속 150.2km를 자랑한다. 하지만 김윤수 역시 제구력이 속세로 남아 있다.

강력한 신인왕 후보 정철원(두산)의 직구도 뛰어나다. 늘 위기 상황에서 등판해 150km대의 강속구를 던지며 확고한 믿음을 주고 있다. 정철원의 직구 평균구속은 148.7km이다.

이민석(롯데·직구 평균구속 148.6km), 장필준(삼성·147.7km), 김범수(한화·147.6km), 홍건희(두산·147.5km)도 KBO의 내로라하는 강속구 불펜투수 중 한명이다.



함평군, 제4회 경찰청장기 레슬링대회 전원 입상 쾌거
함평군 레슬링 선수들이 경찰청장기 레슬링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함평군청 레슬링팀 선수들은 지난 25-26일 김천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 '제4회 경찰청장기 레슬링대회'에서 그레고로만형 출전 선수 전원이 입상하는 쾌거를 거뒀다. 사진 왼쪽부터 김종민(2위·72kg)·나명필(1위·72kg) 선수, 윤성용 코치, 김가빈(1위·63kg)·양시은(1위·77kg) 선수.

순천시청 소프트테니스 추문수, 국제대회 단식 우승

태국서 열린 ISTF 월드투어 인터내셔널 챔피언십 정상 올라

소프트테니스 국가대표 상비군인 추문수(29, 순천시청)가 국제 대회에서 남자단식 우승을 차지하며 파란을 일으켰다.

전남소프트테니스협회(회장 김태성)에 따르면 지난 23일부터 28일까지 5일간, 태국 파타야 테니스인터클럽에서 개최된 "2022 국제소프트테니스연맹(ISTF) 월드투어 인터내셔널 챔피언십"에서 순천시청 추문수가 남자 단식 우승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추문수(순천시청)는 8강에서 남자복식 최강자 이요한(음성군청)을 4-1, 4강에서 국가대표 윤형욱(순창군청)을 4-1로 격파하며 국내에서 내로라 하는 간판 스타들을 차례로 꺾으며 결승에 진출했다.

결승에서 남자단식 최강자인 김진웅(수원시청)과 접전 끝에 4-2로 승리를 거두며 최정상에 우뚝 올라섰다.

김진웅(수원시청)은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이자 세계선수권 단식 2연패를 한 남자단식 챔피언이자 베테랑이다.

추문수(순천시청)는 "태극마크를 달고 처음 국제대회에 출전에 우승을 차지하게 꿈인 것만 같다"며 "매우 기쁘다"고 소감을 말했다. 이어 "내년에는 상비군이 아닌 국가대표로 선발되어 해외유아시안게임에 나가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김백수 순천시청 소프트테니스 감독은 "무



덤과 습한 날씨에 힘들었는데 국제대회에서 우승이라는 성과를 거둔 추문수 선수에게 고맙고 축하한다"는 말과 함께 "올해 제103회 전국체육대회에서도 좋은성적을 거둘수 있도록 훈련에 전념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김태성 전라남도소프트테니스협회장은 "국제대회라는 큰 무대에서 좋은 성적을 얻은 추문수 선수에게 박수를 보낸다"며 "앞으로도 운동에만 전념할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승호기자

전남체고 김채연, 세계주니어 선수권 '금빛 페달'

500m독주 금메달·스프린트 은메달 획득...전남미용고 나운서 4위

대한민국 사이클 유망주 김채연(전남체고 3년)이 세계주니어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 1개, 은메달 1개를 획득했다.

전남체육고등학교(교장 최종술)에 따르면 지난 23일부터 27일까지 이스라엘 텔 아비브에서 열린 "2022UCI트랙 세계주니어선수권대회"에서 전남체육고 김채연이 500m 독주에서 금메달, 개인스프린트에서 은메달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500m독주에 참가한 김채연은 예선전에서 35.103초 좋은 기록으로 참가선수 가운데 1등으로 예선전을 통과하였다. 이 기세를 몰아 결승전에서는 34.871초 기록을 세우며 35.048초를 기록한 독일의 클라라 슈나이더(Clara SCHNEUDER)를 제치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

다. 이어서 개인스프린트에서는 200m 예선전에서 11.394초를 기록 참가선수 가운데 3등으로 예선전을 통과하였다. 침착한 경기운영 능력으로 순조롭게 결승전에 진출하였으나 예선전에서 1위를 기록한 독일의 클라라 슈나이더(Clara SCHNEUDER) 선수에 막혀 은메달을 획득하였다.

한편, 같은 대회에 참가한 나운서(전남미용고 2년)는 500m에서 36.707로 9위를 스프린트에서는 벨기에 출신 니콜라스(Julei NICOLAES)에 가로막혀 아쉽게 4위를 했다.

이번 대회에 참가한 김채연 학생은 "태극마크를 가슴에 달고 국가대표로는 처음 출전하는 세계대회라 다소 긴장했지만 학교와 국가



의 명예를 드높이겠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한 것이 이렇게 좋은 성적이 나올 수 있었다"라며 자신의 소감을 밝혔다.

최종술 전남체육고·고등학교 교장은 "세계 무대에서 마음껏 기량을 펼친 김채연 학생에게 박수를 보내고, 전남을 나아가 대한민국 자랑이다. 한국 사이클의 위상을 높였다"라며 향후 10월에 개최되는 제103회 전국체육대회에서도 좋은성적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채환기자

'CP 여자오픈 준우승' 최혜진, 세계랭킹 18위로 점프

지난주보다 6계단 상승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첫 승을 아쉽게 놓친 최혜진(23)이 세계랭킹 18위로 올라섰다.

최혜진은 30일(한국시간) 공개된 여자골프 세계랭킹에서 지난주 24위보다 6계단 상승한 18위를 차지했다.

최혜진은 전남 막을 내린 LPGA 투어 캐나다 퍼시픽(CP) 여자오픈에서 최종합계 18언더파 266타를 기록, 공동 2위에 올랐다.

19언더파 265타로 우승한 파울로 레토(남아프리카공화국)에 1타 뒤져 준우승에 머물렀다. 올해 투어에 뛰어든 최혜진은 3라운드까지 공동 선두에 자리하다 최종 라운드에서 공동 2위로 밀려났지만, 세계랭킹에선 의미있는 발걸음을 옮겼다.

고진영은 31주째 랭킹 1위를 고수했다. CP 여자 오픈에서 최혜진과 공동 2위에 오



의 순위는 변동이 없었다. 박민지는 3계단 오른 17위에 안착했다.

CP 여자 오픈에서 처음으로 트로피를 들어 올린 레토는 무려 86계단이나 순위를 끌어 올려 56위에 자리했다.

뉴시스